천년고찰 최연소 한일 혼혈 주지스님 '화제'

日 '다이니치지' 주지 오구리 코묘 스님

박영빈 객원기자

시코쿠 순례길 중 13번 사찰
어머니 묘선 스님 이어 취임
외국인 안내 등 다양한 시도
지역사회서도 기대·호응 커

'시코쿠 88개소 순례' 가운데 13번 사찰인 '다이니치지(大日寺)'. 그곳에 새로 취임한 젊은 주지스님의 내력이 화제다. 1월 19일 일본 'JRT 시코쿠 방송'은 시코쿠 순례 사찰 중 최연소 주지이자 한일 혼혈인 오구리 코묘 스님의 이야기를 특별보도했다.

'시코쿠 88개소 순례'는 일본 시코쿠 섬을 일주하는 불교 성지순례길로, 1200㎞에 달한다. 통칭 '오헨로'라고 불리는 이 길은 1200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세계 문화유산의 등재도 준비하고 있다.

이 가운데 13번 사찰인 '다이니치지'는 사상 첫 외국인 주지스님으로 유명세를 탔다. 이제는 최연소 한일 혼혈의 주지스님을 맞이해 일본 불교계와 지역사회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다이니치지는 815년 일본 진언종의 종조이자 시코쿠 순례길의 개조인 코보대사(弘法大師)가 직접 개산한 사찰이다. 여러 차례 소실과 재건을 거듭해 17세기 중반, 지금과 같은 사격을 갖추게 됐다.

코묘 스님은 "17년 전 주지이자 아버지인 코에이 스님이 갑자기 입적하면서 상황이 크게 변했다. 어머니와 내가 사찰의 명맥을 이을 것이라곤 생각하지 못했다"고 회상했다. 코묘 스님의 어머니이자 전대 주지였던 김묘선 스님은 "코에이 스님이 입적 직전 (나와 코묘 스님에게) 출가해 스님의 자격을 갖추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스님이 입적 직후 우리 모자가 함께 교토의 다이가쿠지(大覚寺)에 입산출가했다"고 말했다.

묘선 스님은 한국 중요무형문화재인 승무의 전수자이다. 스님은 "당시 어린 코묘 스님이 '아버지처럼 훌륭한 스님이 될 테니 성인이 될 때까지 어머니가 힘내주시길 바란다'라는 말을 했다. 그 말에 결의를 다지고 절을 지켰다"고 전했다. 묘선 스님은 2008년 시코쿠 88개소 사상 최초로 외국 국적 주지로 취임했다. 당시 코묘 스님은 친척이 있는 미국으로 건너가 대학까지 유학을 마쳤다. 코묘 스님은 "세계화라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 속에서 고찰의 주지로서 넓은 시야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유학의 계기를 전했다.



한일혼혈, 최연소 주지로 취임한 오구리 코묘 스님. 사진출처=JRT 시코쿠 방송 화면 캡쳐

코묘 스님은 3년 전 귀국해 진언종의 총본산인 고야산에서 수행을 마치고 어머니인 묘선 스님의 뒤를 이어 새로운 주지로 취임했다. 스님은 "주변 분들과 나이 차가 크고, 동년배가 거의 없어 대화나 업무를 잘 할 수 있을지 불안감이 컸다"며 처음 주지를 맡을 때의 심정을 전했다. 그러나 스님은 유학 경험을 살려 영어로 외국인 순례자들을 안내하거나, 취미인 헬스 트레이닝을 활용해 신도들을 대상으로 근육 트레이닝을 지도하고 있다. 스님은 "(헬스 트레이닝이) 불교와 이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마음뿐만 아니라 몸도 함께 다스리는 것이 진정한 수행"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직접 디자인한 티셔츠나 운동복 등을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신도들 사이에서도 젊은 주지스님의 적극적인 활동에 호응을 보내고 있다.

코묘 스님은 "사찰 전통을 지키면서, 현대에 맞추어 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다양하게 불교를 경험할 수 있는 강좌나 이벤트 등을 진행할 것"이라며 향후 계획을 밝혔다. 전통과 격식의 세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차세대의 주지스님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부처님의 머리카락?" 베트남 불교계 '들썩'

바방 파고다, 사리 전시회 개최
"부처님이 준 것 중 하나" 홍보
사리 진위여부 두고 논란 가중
논란에 미얀마로 머리카락 반환

베트남 불교계가 부처님의 머리카락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1월 15일 '자유 아시아 방송(RFA)'은 베트남 북부 꽝닌성의 바방 파고다(Ba Vang Pagoda)에서 진행된 사리 전시회에 대한 현지 상황을 보도했다.

지난해 12월 23일부터 27일까지 바방 파고다에 전시된 '부처님 머리카락 사리'는 미얀마에서 이운된 것으로, 베트남 도착 당시부터 현지 언론의 큰 호응을 얻었다.

바방 파고다 측은 "이 머리카락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성도 후 첫 공양을 올린 두 미얀마 상인에게 준 8가닥의 머리카락 중 하나"라며 "이 사리는 미얀마의 파라미 국제 불교 사리 박물관에서 베트남 불자들을 위해 이운한 것으로 미얀마의 국보"라고 홍보했다. 전시회와 법요식에 참석하기 위해 수천 명의 불자가 운집했으며, 더 많은 일반 관광객이 탑을 방문한 것으로 현지 언론은 전했다.

그러나 이 머리카락 사리의 진위여부와 관련한 다양한 의문이 제기됐다. 쉽사리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꽝닌성 내무부 종교위원회와 베트남불교를 대표하는 베트남불교 승가집행위원회(VBS)가 전시회에 대한 위법성과 사리에 대한 검증에 나섰다.

검증작업이 이어지면서 바방 파고다는 "머리카락 사리는 전시회가 끝난 27일 당일 사리가 본래 소장처인 박물관으로 다시 이운됐다"고 밝혔다. RFA 측은 "사리를 봉안하고 있다는 박물관과 박물관을 운영하는 파라미 사원 모두 미얀마 양곤에 소재하는 것을 확인했지만 취재나, 질의에는 응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한편 익명을 요구한 미얀마 최고 국가 불교승가 평의회 의원인 한 스님은 RFA와의 인터뷰에서 "미얀마 내부에서도 사리로 불리는 많은 유물의 출처가 불분명하다. 오늘날 이러한 유물들에 대한 진위는 신앙이 아닌 논리적 추론이 필요하다"며 "만약 진정한 부처님의 머리카락이었다면 인구의 87%가 불교도인 미얀마에서 더 잘 알려졌을 것이고, 또 해외로 보내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의견을 내비쳤다.

VBS 측은 이번 논란에 대해 지난 1월 4일 회의를 열고, 사리전시회를 주관한 바방 파고다의 주지 틱툭타이민 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스님에 대한 징계를 논의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VBS 부의장이자 사무총장인 틱둑티엔 스님은 발표를 통해 "틱툭타이민 스님은 대중에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승가의 위의를 훼손한 전시에 대해 사부대중 앞에 과오를 인정하고 참회한다"고 전했다. VBS는 논의를 거쳐 틱툭타이민 스님의 참회를 받아들이고, 스님과 바방 파고다가 올해 한 해 동안 국제 교류를 조직하거나 국제 교류 모임에 참석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영빈 객원기자


'부처님 머리카락 사리'로 바방 파고다에서 전시된 머리카락. 사진출처=바방 파고다

美루이빌 불상 한 달 새 2차례 훼손

스프레이 뿌리고 불상 손 훼손
범인 특정 어려워…CCTV 추가

미국 루이빌(Louisville)에 위치한 한 사찰에서 불상이 약 한 달 새 두 번이나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1월 17일(현지시간) 루이빌 지역 매체 WDRD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월 12일 루이빌 비치몬트 지역 뜨안(Từ Ân) 사원에 있는 불상의 손 부분이 훼손됐다. 불과 몇 주 전에는 신원미상의 피의자들이 이 불상에 스프레이 페인트를 뿌렸다.

당일 CCTV에 용의자들이 불상에 올라가 양 손목을 떨어트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불상은 베트남에서 공수한 돌을 이용해 맞춤 제작돼 수리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불상의 손이 훼손된 모습. 사진출처=WDRD

현재 경찰은 사원으로부터 신고를 받아 수사 중이지만 용의자를 특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사원은 CCTV를 추가 설치하는 등 혐오 범죄를 막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원 관계자는 "지역사회가 종교와 관계없이 모든 종교를 사랑하고 아우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정현 객원기자

FBI, '사찰 방화' 용의자 공개수배

현상금 1만 달러 내걸어
"종교적 자유 보호 돼야"

미국 텍사스주에서 발생한 불교 사찰 방화 사건 용의자를 잡기 위해 FBI가 현상금을 내걸었다.

FBI는 1월 19일(현지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텍사스주 뉴커니에 위치한 휴엔트랑(the Huyen Trang) 사원에서 발생한 화재의 용의자를 공개수배한다"며 1만 달러(한화 약 1300만원)를 현상금으로 내걸었다.

앞서 지난해 11월 5일 오후 9시 43분께 신원미상의 한 남성이 창문을 통해 사찰 건물 내부에 화염병을 던졌다. 불은 즉각 건물 전체로 번졌다.

FBI 관계자는 "FBI는 모든 미국인의 종교적 자유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종교시설은 위협, 파괴, 폭력의 대상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안전한 영혼의 피난처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FBI가 화재 용의자 공개수배 전단을 공개했다. 사진출처=미FBI 공식 홈페이지

FBI는 용의자를 키 172~175㎝ 사이의 남성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는 나이키 백팩과 캡모자, 장갑, 밀리터리 무늬의 부츠를 착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박정현 객원기자

